

## 추도문

### 추모사

김영식†

내가 송상용 선생을 처음 만난 것은 1977년 8월 선생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였다. 당시 나는 그해 6월 초에 귀국해서 서울대 화학과 임용을 대기 중에 있었는데 10년이나 아래인 나를 선생께서 찾아오신 것이었다. 미리 연락도 하지 않으시고 아직 발령 이전이어서 전화도 없고 명패도 붙여지지 않은 교수실로 오신 선생과 나는 대화 내용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느 분으로부터 나에게 들었다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고, 항상 들고 다니시는 가방에서 학회 입회원서를 꺼내 작성하도록 하신 후 받아가지고 홀연 떠나셨다.

그 후 학회 일을 중심으로 40년이 훨씬 넘도록 이런저런 일로 선생을 꾸준히 만나고 함께 일해 왔다. 특히 연초 학회의 신년 모임 자리에서 선생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내게 한 해를 시작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 주었는데 이제 내년 학회 신년 모임에 선생이 계시지 않으리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1979년 말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끝낸 후 선생은 그동안 도맡아 해 오시던 학회 일을 조금씩 내게 맡기기 시작하셨다. 선생은 1983년인가에 그간 20년이 넘게 맡아오시던 간사직을 박성래 선생께 넘기셨는데, 2년 후 1985년 박 선생께서 학교의 보직 때문에 그만두시게 되자 내가 간사직을 물려받았고 이때부터 학회의 여러 업무를 내가 맡아 하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선생이 학회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실 리는 없었고 계속 관심을 보이시면서 도와주셨기에 선생의

---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kysik@snu.ac.kr

지도와 관할 하에 학회 일을 했다고 하는 편이 정확하겠다. 1991년 선생이 학회 회장이 되면서는 그때까지 맡아오시던 학회지 편집인 직도 내게 물려 주셨다. 학회지 발간은 사실상 학회의 가장 큰 일로 선생께서도 크게 애착을 지녔던 일이었기에 그 후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다. 이렇게 선생과 함께 학회 일을 해 오면서 선생의 일하는 방식과 성격, 습관 등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선생은 학문적으로 폭넓은 관심을 지니셔서, 과학사는 물론 과학철학, 과학사 회학, 과학정책, STS 등 여러 관련 분야 모두에 일일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과학사 분야에서도 선생은 세미나, 토론회, 강연회, 학술발표회 등 개최, 학회지 및 관련 도서 출간, 신문잡지 기고, 인터뷰, 연구 및 저술 지원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셨다. 특히 과학사 분야를 위한 선생의 헌신적 마음가짐은 흔들림이 없었다. 선생은 과학사 분야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지치는 일이 없이 나서셨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누구와 만나서 추진하는 것도 망설이거나 마다하지 않으셨다.

선생은 또한 국제 학계와도 광범위한 교류를 해 오셨다. 선생은 세계 여러 곳에서 열리는 과학사 관련 주요 국제회의들을 챙기고 많은 경우 친히 참석하셨다. 그 외에도 해외에 장·단기간 체류하시기도 하고 국내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외국 학자들을 초청하는 일도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여러 계제에 만나게 되는 외국 학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친분을 유지하셨다. 과학사 분야의 외국 학자를 만나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바로 선생과의 친분을 이야기하며 선생의 안부를 묻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은 나만의 경험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같은 폭넓은 관심과 활동 중에서도 선생은 모든 일에서 꼼꼼하셨다. 선생의 꼼꼼함은 특히 학회지 편집을 두고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편집인으로서의 긴 기간 동안은 물론 학회장이 되어 편집인 직을 내려놓은 후에도 선생은 학회지 편집 일에 깊은 애착을 보이며 모든 원고를 꼼꼼히 검토하려고 하셨다. 선생의 검토는 내용만이 아니라 표현, 어법, 맞춤법, 그리고 외국어 표기법에까지 걸쳤기에 당연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당시 학회 간사로서 학회지를 정해진 날짜 안에 발행해야 할 입장에 있었던 내게 어려움을 주었다. 선생의 검토를 받느라 늦어지는 것보다는 일단 날짜 안에 발행한 후에 선생에게 혼나라고 대학원생 “간사보”들을 다그치던 일이 생각난다.

선생은 모든 일에 확실하고 분명했고, 무슨 일이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차 없이 지적하셨다. 그 때문에 선생이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사

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생은 한없이 넓은 포용력을 지니고 있었고 자신과는 다른, 반대되는 의견도 존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은 전혀 뒤끝이 없으셔서, 아무리 큰 의견 차이가 있었더라도, 아무리 큰 불만을 표시하셨었거나 야단을 치셨었더라도, 다음번 만났을 때에는 여전히 잘 대해 주셨다.

선생은 검소와 절약이 몸에 밴 생활을 하셨다. 특히 가능하면 항상 대중교통만을 이용하셨다. 그러면서도 후배나 학생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풀었다. 선생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늘 자신이 계산을 하시려 하셨다. 자꾸 신세를 지는 게 부담스러워 한번 값으려고 마음먹어도 여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선생이 이미 계산을 하셔버려 기회를 놓치기 일쑤였다.

선생은 알고 지내는 사람들 개개인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누군가가 관심이 있을 만한 글이나 소식이 있으면 스크랩해 두었다가 다음번 만날 기회에 전해 주셨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참석할 사람들에게 줄 사진, 글 등을 예의 그 “가방”에 넣어 가지고 오셨다가 한사람, 한사람에게 일일이 전해 주시는 것은 선생이 참석하는 모임에서 항상 보게 되는 일이었다.

선생을 떠나보내면서 선생과 나 사이에 있었던 여러 일들 중 떠오르는 일어난 가지 있다. 내가 서울대의 과학사 강의를 맡게 된 과정에 관해서이다. 1977년에 부임하고 1년이 지난 78년 2학기부터 나는 당시 “과학사개론”이라는 이름으로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의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선생이 관련되어 있었다. 당시 자연대 교무학장보 박세희 교수에게 그 강의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박 교수는 그 동안 강의해 오신 송 선생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니 내가 직접 말씀드리라고 권했고, 내게서 이야기를 들은 선생은 흔쾌히 받아들이시면서 “김 선생이 서울대에 왔으니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내놓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당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던 내 상황을 배려해서 내게 넘기지 않고 계속 강의를 해 오고 계셨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후 한참이 지나서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가 오기 얼마 전 서울대에는 그동안 10년 정도 강의해 오신 선생을 전임으로 채용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어느 학과에 소속시키느냐가 문제가 되는 단계였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화학과에 임용되게 되게 되자 과학사 전임 교수의 임용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내가 들어오면 과학사 강의를 할 수 있으니 따로 과학사 교수를 뽑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선생의 임용이 무산되었고, 이에 선생은 서울대 임용을 단념하고 내가 귀국하기 몇 달 전 성균관대 교수로 가셨다

고 한다. 어떻게 보면 결국 내가 선생이 오래 품어오시던 희망을 좌절시킨 셈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선생은 전혀 내게 이에 대한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 그 같은 관계였다면 있을 수 있을 불만이나 어색함 같은 것은 전혀 없이 같은 분야의 후배인 나를 잘 대해 주셨고 내 자신이나 내 학생들, 내가 추진하는 일들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다. 특히 선생은 서울대의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 강의를 맡아 해 주시기도 하고 세미나 등 행사에는 항상 자신의 일처럼 적극 참여하셨고 거액의 학술발전 기금을 기부하기까지 하셨다. 그리고 나는 선생의 서울대 임용을 두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까마득히 모른 채 한없이 미더운 선배인 선생의 도움과 배려를 당연하다는 듯이 받고 누려 왔다.

선생이 떠난 이제 와 생각해 보면, 우리 과학사 분야의 초창기를 선생과 같은 분이 이끌었다는 것은 우리 분야를 두고서 큰 축복이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선배를 “향유”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도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이었다.